

[바둑]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박영훈 9단> <최철한 9단> <원성진 9단> <강동윤 9단>

“우리 목표는 후지쯔배 탈환”

한국이 11일 개막하는 제22회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 정상 탈환을 위해 이창호, 이세돌, 박영훈, 최철한, 원성진, 강동윤으로 구성된 드림팀을 출격시킨다. 지난해 구리 9단에 우승컵을 내주면서 대회 10연패(제11회~20회)에서 멈췄던 한국은 이번엔 다시 우승컵을 찾아오겠다는 각오이다. 지난 대회 우승, 준우승, 3위를 차지한 구리, 이창호, 장하오 9단이 시드권을 확보해 출전하게 된다. 제9, 11회 우승자이기도 한 이창호는 출전 선수 가운데 후지쯔배 출신 최수로는 최고참이다. 이번 출전이 20번째이다. 제9, 11회 때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제20, 21회 준우승을 차지하며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이창호는 최근 KBS 바둑왕전 우승으로 재충전했다. 이 기세를 모아 1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이다. 여기에 구리와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세돌은 지난 2월 LG배 결승전에서 구리 9단에 0-2으로 패한 뒤 큰 충격을 받았지만 BC카드배 8강 진출, 18개월 연속 한국랭킹 1위 등 서서히 컨디션 회복에 들어갔다. 출전 선수 가운데 후지쯔배와 가장 인연이 깊은 선수는 후지쯔배 우승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박영훈 9단이다. 지난해 세계대회에서 눈에 띄는 전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GS칼텍스배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으며, 맥스커피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기운을 회복하고 있다. 또 응씨배 결승 진출과 맥심배 우승으로 부활하고 있는 최철한과 농심배 5연승의 강동윤도 기대된다. 한국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첫 출전인 원성진은 누구라도 한방이면 나가떨어질 강력한 ‘원펀치’를 가다듬고 있다. 중국은 지난 대회에서 역대 최대 인원인 7명이 출전한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구리는 이번이 7번째 출전이다. 구리는 세계대회에서만 도요타배,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중앙아협동산배, NEC배 우승을 차지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또 랭킹 2, 3위인 공지에 7단, 장하오 9단, 창씨배 선수권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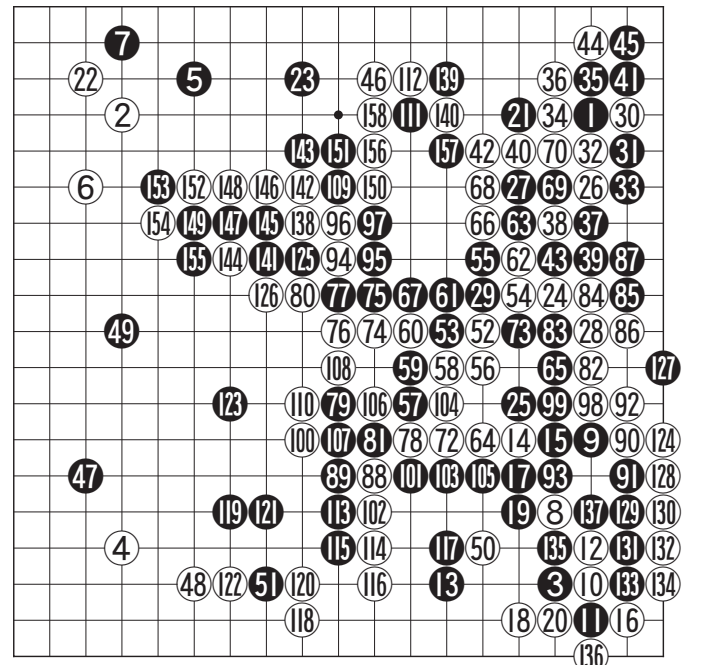
치우권 8단(랭킹10위)과 후지쯔배에 첫 출전하는 싸이허 7단, 저우허양 5단, 박문오 5단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일본은 야마시타 게이코, 다카오 신지, 장쉬, 하네 나오키, 고노 린, 모리야마 나오키 9단, 이야마 유타 8단 등이 출중동한다. 대만은 최근 자국 타이틀을 휩쓸면서 사실상 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린즈한 8단이 출전한다. 이밖에 남아대표 아갈라 아마6단을 비롯해 북미대표 리지에 아마7단, 유럽대표 요셉 아마6단 등이 출전하지만 16강 진출 정도가 기대되는 전례이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 60초 초읽기 10회이다. 우승 상금은 1천500만엔, 준우승 상금 500만엔이다. 한편 후지쯔배는 한국 프로기사들이 결승전에 진출할 경우 병역특례가 주어지지만 박정상, 송태근 등이 혜택을 보았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바둑이 체육으로 분류돼 야산인제인과 올림픽 우승자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지도록 바뀌어 후지쯔 병역특례는 사라졌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개막
작년 우승자 중 구리 등 세계 강호 총출동
한국, 이창호·이세돌 등 6명 ‘드림팀’ 출격

제4기 원익배 10단전

박정환, 귀중한 첫 승리
결승 1국 총보 (1~158)

白 박정환 3단 黑 백홍석 6단



이 바둑은 백홍석의 작각으로 중앙 흑 대마가 잡히면서 심하게 끝나고 말았다. 초반부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며 반상을 혼돈 속에 몰아넣었던 치열한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러 어이없는 종말을 맞은 것이다. 초반 우편에서부터 시작된 전투는 흑이 29로 씌우면서 백 46까지 엄청난 바둑재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는 흑이 두렵다는 것이 국수검토에 참여한 기사들의 중론이었다. 박정환도 우편이 굳어지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백 52로 승부수를 던져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공했다. 백 60부터 70까지 깨끗하게 싸바른 것이 좋은 수순이며 잡혔다

이세돌 18개월 연속 랭킹 1위

강동윤 2위...이창호는 3위로 추락

이세돌 9단이 2009년 18개월 연속 한국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기원이 발표한 4월 랭킹에서 이세돌이 1위를 차지했다. 이세돌은 지난달 열렸던 제1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 챔피언십 64강과 32강전에서 중국의 라오싱민 2단과 대만의 천스위엔 7단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등 4승 1패의 성적으로 전 달보다 5점 상승한 총점 9천740점을 획득했다. 반면 이세돌을 추격하던 이창호 9단은 최철한 9단과의 제6회 응씨배 결승 5번기 1승 2패의 열세와 제1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 챔피언십 16강전 패배로 점수가 대폭 하락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2위는 강동윤 9단이 올랐다. 강동윤은 지난달 4승 1패의 성적으로 13점 상승한 총점 9천617점을 기록하

2009년 4월 한국랭킹 순위

Table with 5 columns: 순위, 기사명, 랭킹 점수, 순위 변동. Lists top Go players like Lee Sedol, Kang Dong-yun, and Lee Chang-ho.



물오른 김정현, 프로 관문 통과

물 오른 김정현(17·충암고 3년)이 입단 관문을 통과했다. 김정현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제119회 연구생입단 대회에서 류민형에게 304수 끝에 백 불계승했다. 이로써 김정현은 ‘졸렬하나마 제 스스로는 지킬 줄 안다’는 수훈(守拙·초단의 범칭)에 올랐다. 육득진 6단을 사사한 김정현 초단은 7세 때 바둑에 입문했으며 2002년부터 입단대회 직전까지 한국기원 연구생 생활을 했다. 남자연구생 상위 48명이 출전하는 연구생입단대회는 예선전을 벌인 후 예선 통과자 8명이 본선 8강 토너먼트를 벌여 마지막 승자가 입단에 골인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22일 끝난 2009년 전반기 6회차 연구생리그에서는 김기원이 남자연구생 내신 1위, 김해림이 여자연구생 내신 1위를 확정지으며 입단했다. 김기원, 김정현, 김해림 초단의 입단으로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수는 236명(남자 193명, 여자 43명)으로 늘었다. /오광복기자 kroh@

이세돌 BC카드배 8강에

이세돌 9단이 제1회 BC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마지막 8강 티켓을 따냈다. 이세돌은 지난 5일 한국기원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 대회 16강전에서 원성진 9단에 203수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며 8강에 합류했다. 이세돌은 16강전에서 장하오 9단을 꺾은 박영훈 9단과 준결승전 진출을 다투게 된다. /오광복기자 kroh@

조혜연 8단 첫번째 ‘바둑 사할집’ 퍼내

조혜연 8단이 ‘조혜연의 창작 사할(Hye Yeon's Creative Life & Death·사진) I’을 냈다. 풀이 과정이 상세하고 읽는 사람을 배려한 다양한 참고도가 있어 이해하기는 훨씬 쉽게 구성됐다. 또 블로그를 통해 조혜연 8단과 직접 소통하며 사할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해외바둑팬을 위해 영어 해설을 중심으로 했고 한글이 곁들여졌다. 조혜연이 엄선한 48문제로 다룬 사할집에 비해 문제수는 적다. 조혜연 8단은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사할 문제에 대한 해외 바둑팬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 책으로 묶어 냈다”고 밝혔다. /오광복기자 kroh@

공인중개사 박문각 공인중개사전문학원

2009.V-VIP회원안내. Includes details about membership benefits, exam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Park Moon-gak.

7.9금 공무원 전직렬. Advertisement for a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course, highlighting a 7.9 million price and comprehensive materials.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including addresses and prices.